

재발 또는 불응성 유방암에서 Taxol과 epirubicin의 복합화학요법

인하대학교 혈액종양내과<sup>1</sup>, 일반외과<sup>2</sup>

이 문희<sup>1\*</sup>, 김 인호<sup>1</sup>, 김 세중<sup>2</sup>, 김 철수<sup>1</sup>

**목적 :** 본 연구의 목적은 이전에 taxane계통의 약물로 치료받지 않은 진행성 유방암환자를 대상으로 taxol과 epirubicin의 복합화학요법에 대한 반응과 부작용을 알아보기 위해 진행되었다.

**환자 및 방법 :** 1998년3월부터 2001년 6월까지 모두 19명의 진행성 유방암환자를 대상으로 모두 이전에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환자들이었다. 약물은 paclitaxel 175mg/m<sup>2</sup> 3hr 투여, epirubicin 60mg/m<sup>2</sup>을 3주 간격으로 병행하여 진행하지 않을 때까지 투여하였다.

**결과 :** 총 19명 중 18명에서 평가 가능하였다. 환자 연령의 중앙값은 44세(33-74세), 모든 환자의 활동도 <2, 이전에 anthracycline에 노출된 환자는 10명(56%)이고 16명(89%)에서 수술 및 보조화학요법을 받았고 10명(56%)에서 4술 후 방사선치료를 받았다. 반응률은 완전관해는 없었고 부분관해 16.7%(3명), 불변 66.7%(12명), 진행 16.7%(3명)이었다. 무진행 생존기간의 중간 값은 4.7개월(1.8-38.2개월)이었으며 생존기간의 중간 값은 30.4개월(12.8-168개월)이었다. 환자들은 평균 6cycle, 총 114cycle의 항암화학요법을 받았다. 부작용은 주로 백혈구 감소증 이었는데 총 19명중 17명(89.5%)에서 발생하였고 3도/4도의 경우도 총 5명(26%)에서 나타났다. 그러나 치료로 인한 사망은 없었고 우려하던 심장독성도 나타나지 않았다. 이외에도 2도 이하의 구내염과 신경독성이 나타났다.

**결론 :** 재발 또는 불응성 유방암에서 taxol과 epirubicin의 복합화학요법은 비교적 안전하며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..

국소 진행성 유방암에서 CAF 선행화학요법의 효과

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, 삼성서울병원 내과, 일반외과<sup>1</sup>

송서영<sup>\*</sup>, 박준오, 이순일, 이효락, 박세훈, 김기현, 김원석, 정철원, 남석진<sup>1</sup>, 임영혁,

윤성수, 이흥기, 강원기, 양정현<sup>1</sup>, 박찬형, 박근철

**목적 :** 유방암에서의 수술 전 선행화학요법은 국소적으로 진행되어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, 종양의 크기를 줄여 수술을 용이하게 하여 치료효과를 높이하고자 시행된다. 연구자들은 국소 진행성 유방암에서 CAF를 이용한 선행화학요법의 결과를 분석하여 그 효용성을 알아보고 생존율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예후인자를 알아 보고자 하였다. **방법 :** 1995년 10월부터 2000년 7월까지 삼성서울병원에서 조직학적으로 유방암으로 진단되고, 국소진행성 병기를 가진(T≥5cm 또는 T4), 18-70세의 환자를 대상으로 선행화학요법 후 수술을 시행하였다. 치료는 제 1일에 cyclophosphamide 500mg/m<sup>2</sup>, adriamycin 50mg/m<sup>2</sup>을 정주하고, 제 1일과 제 8일에 5-fluorouracil 500mg/m<sup>2</sup>을 정주하는 것을 3-4주 간격으로 2-4회 시행한 후 재평가하여 수술을 시행하였다. **성적 :** 전체 33명의 환자가 평가 가능하였으며 중앙연령은 48세(범위 31-68)였고, 35세 이상은 29예(87.9%)였다. 폐경전 여성은 19예(57.6%)였으며 수술전 임상적 병기는 T3, T4가 각각 15예로 90%였고, 병기 IIIA가 18예, IIIB가 15예였다. 조직학적으로 87.9%가 infiltrating ductal carcinoma 소견을 보였으며 ER은 27.3%, PR은 6.1%, p53과 c-erbB2는 각각 75.8%, 60.6%에서 양성을 나타내었다. 선행화학요법은 2-4회(중앙값 3) 시행되었고, 33예에서 수술이 가능하였으나 1예에서는 수술거부로 시행되지 못하였다. 선행화학요법의 반응으로는 WHO criteria에 의한 부분관해가 21예(63.6%)에서 관찰되었고 down-staging은 13예(39.4%)에서, 수술 후 병리학적 완전관해가 2예(6.3%)에서 관찰되었다. 화학요법과 관련된 독성으로는 3등급 이상의 호중구 감소증이 2예에서 관찰되었고, 이 중 1예에서 발열이 동반되었으며 중심정맥도관과 관련된 감염이 2예였고 치료 중 사망한 예는 없었다. 전체 환자의 추적기간의 중앙값은 22.1개월(범위 4.5-65.6)이었고 3년 추정 생존율은 62.3%였으며, 무병생존의 중앙값은 31.4개월(범위 1.3-62.2)이었고 3년 추정 무병생존율은 49.5%였다. 전체 생존율에 대한 의미있는 예후인자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무병생존에 영향을 끼치는 예후인자로 는 연령(≥35 vs <35), p53, 수술 전 down-staging이 의미가 있었다(p<.05). **결론 :** CAF 선행화학요법은 국소 진행성 유방암에서 63.6%의 반응률을 보이고, 그 독성은 받아들일 만 하였다. 그러나, 선행화학요법의 장기적인 효용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더 효과적인 새로운 약제를 이용한 대단위 연구가 필요하겠다.